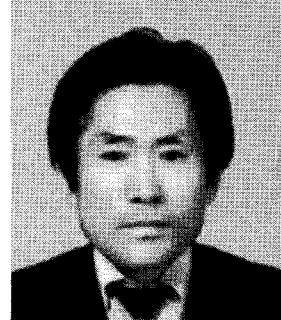


“光產業의 多樣化가 時急하다”



이 광 호

한국광학기기협회 전무이사

정부나 기업에서 정책이나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중의 하나가 “……의 다양화”라는 것이 있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할 때 반드시 산업이 다양화하게 되고 기업의 제품과 시장이 다양화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현재의 기술로 생산가능한 전제품이 생산되며 그 시장도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제품 및 시장의 다양화가 이룩되어 있고 저개발국 일수록 그 반대의 현상이 있게 마련이며 기업 또한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한 결과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기업규모, 생산제품, 판매시장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과 이에 따른 다양화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많은 기업의 생성과 성장에 따라 새로운 업종의 출현, 새로운 제품의 개발,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다양화를 이룩하였고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광산업이 일천한 역사와 기술기반의 취약으로 인하여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광산업이 '90년대 이후 미래 21세기를 주도할 첨단기술 산업의 핵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와 기업은 물론 학계, 연구기관 등 모든 관련 기관에서도 우리나라 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많은 기업이 광산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사진기, 복사기, 현상기, 쌍안경, 현미경, 광통신 등 일부 제품에 소수업체가 지금은 조립내지 가공단계에 머무는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광산업의 소재로부터 부품, 완제품에 이르기 까지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소재와 부품의 다양화를 통한 다양한 완제품이 생산 될 수 있도록 기업의 다양화가 이룩되어야 되겠다.

둘째, 제품의 다양화를 이룩하여야 하겠다. 최근 광학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광학 기술 개발에 최대 역점을 두어 기존기술의 향상은 물론 새로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제품의 고급화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다양화를 이룩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분야의 기업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기술개발에 총력을 경주하여 기술 자립을 하루속히 앞당겨야 하겠다.

셋째, 다양한 규격, 다양한 Model,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기업 변신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현재 광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 기업은 1개 기업에서 생산하는 광산업제품은 1~2개 제품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Model도 몇개 안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일본의 유명한 광학기기 업체인 Asahi, Canon, Minolta, Nikon 등 Camera 업체들의 예를 보면 과거 Camera, Lens 등 1~2개 제품에서 지금은 복사기 등 OA 기기 영상기기, 의료기기, 광반도체 장비, 광계측기기, 항공, 군사용 기기 등 특수 Lens 및 특수 광학장비 등 광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현재는 Camera 분야의 매출액은 전사 매출액의 1/3~1/4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루속히 제품과 규격과 Model 등을 다양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내지 System 산업에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경영의 다양화내지 다각화를 이룩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시장의 다변화내지 다양화를 이룩하여야 하겠다. 최근 많은 기업이 속속 광산업에 참여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도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아 우선은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성과 장래 수입 자유화 확대를 고려 한다면 경영 계획에서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도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계획이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광학기기 업체가 수출에 역점을 두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 진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만 하나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때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활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광학기술 산업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이들 기술의 이전을 극구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모두 힘을 합쳐 기술개발과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제품, 규격, 기능, Model, 업종, 시장 등을 다양화하여 하루속히 선진대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같이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기원한다.